

건축사는 죄(罪)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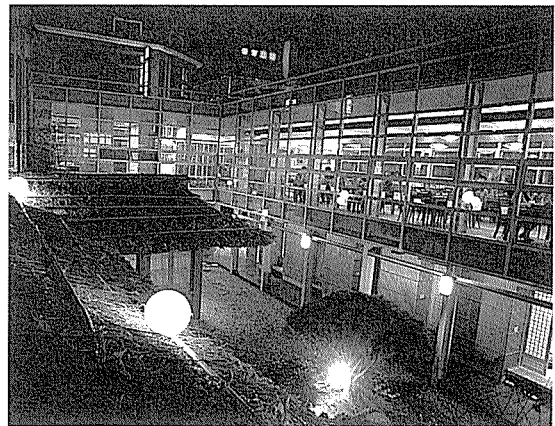
The Architect is Innocent

문철수 / 두양건축사사무소
by Moon Cheol-Soo

작년 초여름.... 그러니까 IMF 위기가 닥친 지 1년 반이 조금 넘어, 대부분의 우리 나라 건축가가 그러했듯이 나 역시 오랫동안의 어려움에 지쳐있었을 때였다. 아마 그때쯤이면 한참이나 멋진 일을 하리라 기대했던 초창기의 기대는 이미 날카로운 비수로 변하여 자존심을 다치고 있었고, 그 상황을 긍정하기 싫었던 내 마음은 무척 피로해 있었다. 그때 그 프로젝트를 만나게 된 것은 일종의 운명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집안끼리도 알고 지내는 건축주 분들의 것이라 무척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賞를 주고있던 오래된 日式 瓦家 식당을 개조하거나, 혹은 조립식 건물로 새로 지으려는 건축주의 의도는 지방도시의 경제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건축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결심했었고, 작품 활동을 위해 약간은 희생해 왔다고 여지껏 생각해 왔었는데 조립식 건물설계까지 손을 대야 한다니, 그것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것인지 짜증스러워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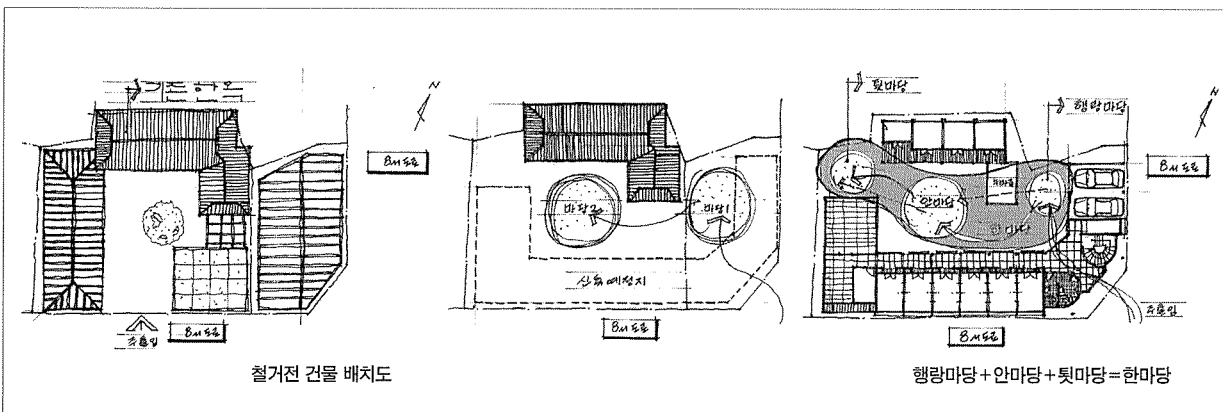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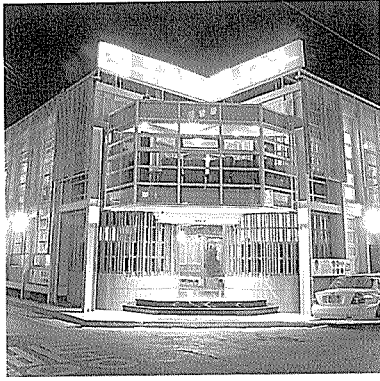
2층옥상에서 마당을 내려다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고통스러웠던 연구실 트레이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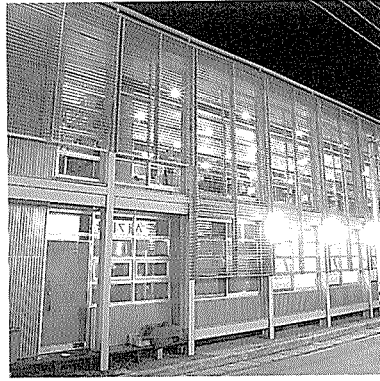
개업 후의 밤낮을 잊은 시간들이 무의미하게만 느껴졌다. 또한 그토록 확신했던 건축에의 믿음은 쓴웃음으로 삼킬 수밖에 없었던 낯선 悲愴의 순간이었다.

결국 건축이 날 배신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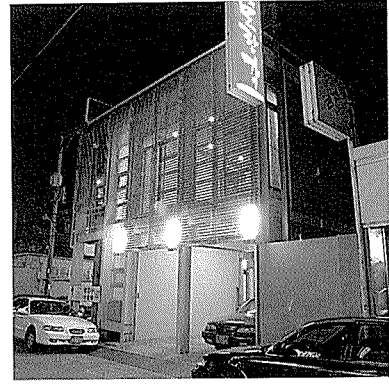




Overall View (야경)



남쪽 외벽



동측에 위치한 주차장 (야경)

오랜만에 제도판에 앉았다.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기존 도면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땅과 이 대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엇일까? 비록 넓고 초라하지만 기존에 있던 한옥(기와는日式이지만 지은 지 60년이 넘게 되었다고 하니 일종의 공동 품이 아닌가)의 숨겨진 가치가 있지 않을까? 또한 韓食堂으로 사용될 건물이니 옛날 한옥이 그랬듯이 기존의 마당을 살리면 멋진 공간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등등.

그러자 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오기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개펄 속에서도 진주조개를 캐 수 있듯이, 이 조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공간을 찾아내면 보람있는 건축행위가 될 것 아닌가?

마음 속에 서서히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농부가 그랬듯이, 또한 등산가의 마음이 그렇듯이 그 결실의 보상보다도 그 과정의 행복감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건축가인 나도 제도판 앞에 앉아서 다시 깨닫고 있는 것이었다. 진주조개를 캐듯이 하나 하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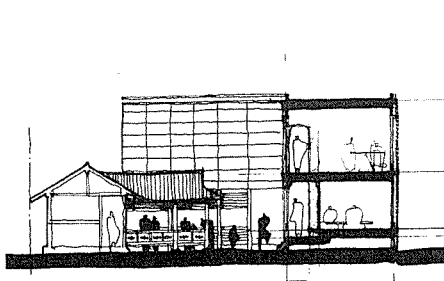
우선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모든 측면에서

한옥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한식당이 될 집 아닌가? 한식당이라면 없는 한옥도 비싼 돈 들여 지을 텐데 철거를 왜해? 그리고 마당! 마당이야말로 우리 건축의 핵심 공간이며, 거기서 모든 것을 다하지 않았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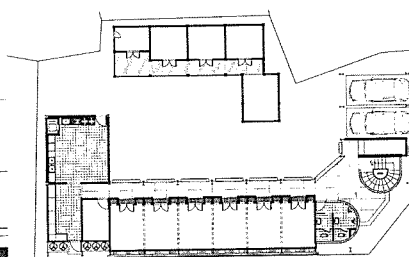
한옥 보존과 함께 오히려 마당의 복원을 서둘러야겠다고 결심했다. 건축주에겐 철거 비용 절감과 신속 시 공사비 비교를 통해 한옥의 보수, 보존을 설득했다.

그 다음엔 신축건물, 이것이야말로 주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한옥과 마당을 둘러싸주는 배경으로써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어차피 새로 짓는 건물이란 어떤 모양으로 들어서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수용하여야 하는 기능은 어차피 포함할 수밖에 없으니, 신·구 조화의 측면에서 기존의 것을 만지는 것보다 훨씬 쉽지는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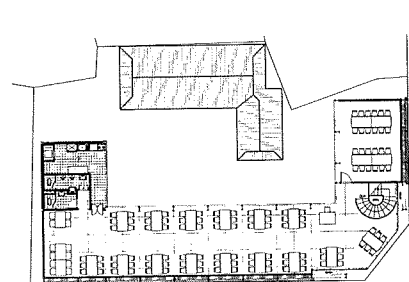
거기까지의 결론에 이르자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 일의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몇 번의 Meeting을 거치며 계획안은 다행스럽게도 모퉁이의 옆 대지까지 포함되게 되어 마당을 둘썩이나 가지



허가가 된 외부공간 - 들창을 통한 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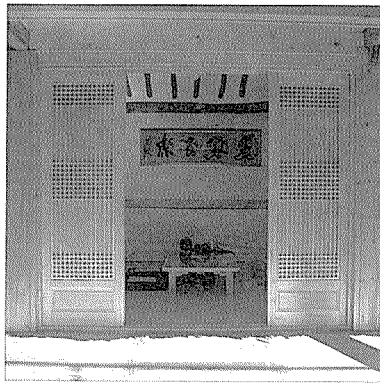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실내



누마루에서 바라본 실내모습



이층에서 마당을 내려다봄(야경)

게 되었다. 그것은 행랑 마당을 가진 안마당의 역할을 하게 되어 공간의 위계성과 품위를 한층 더 높여주는 구실을 해주었다.

또한 그 둘을 구분하는 기존 한옥의 아랫방 부분을 원래 온돌방에서 누마루로 탈바꿈 시켜서 날씨 좋은 날 문짝을 들어 올리면 마당 전체를 하나의 외부 공간으로 묶을 수 있는 가변성 있는 완충적 공간으로 꾸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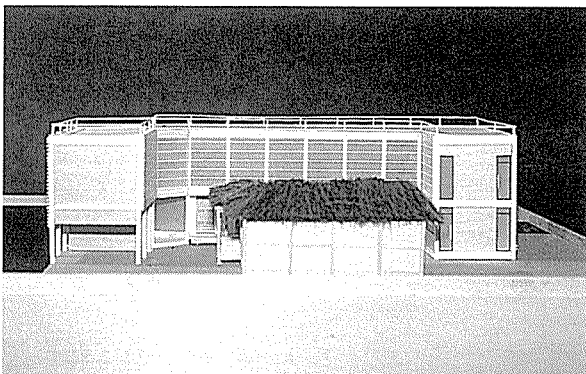
들어 올리는 문짝.... 얼마나 좋은 한옥의 문짝이던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 Project에 와서야 누마루 들창의 진수를 다시 느끼다니 그동안 나는 졸고 있었나 보다. 신축 건물은 건축주의 의도대로 조립식 건물에서 시작하여 점차 철골조로 유도시켜 나갔다. 철골조도 분명 조립식 건물 중의 하나이고,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철골이 사용되게 되는 것 아닌가. 건축주에게는 공기 단축과 때마침 터키, 대만 등지에 지진이 있어 재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변경 이유를 들러왔으나, 내심 양심의 가책과 공사비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건축주는 내내 호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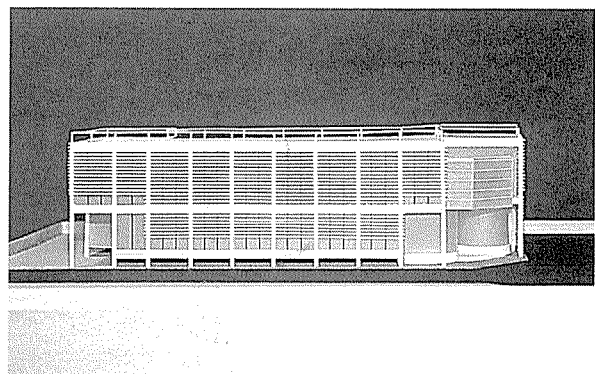
가져 주었고, 공사 규모 확대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꿈을 키워 나가는 듯했다. 이제는 공사비와工期 두 가지의 문제점만 남았다. 어찌됐던 조립식 건물과 비교하게 될 텐데, 나중에 얼마나 원망을 들을런지 조마조마 하였다.

6월말,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내심 걱정했듯이 한옥 보수공사부터 공기는 처음부터 늦어지고 공사비는 늘어만 갔다. 시공자들은 어렵고 안 해 본 작업에 짜증과 돈타령을 입에 달고 있었고, 두 달 예상 공기를 연말까지 끌고 간 덕분에 건축주로부터의 원망도 예상했던 대로 만만치 않았다.

12월에 접어들어서는 어찌하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극도의 혼란상이 야기되었다. 연말이 다 돼서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공사현장을 지켜보고 나서야 사기꾼 같은 건축가를 만난 건축주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앞질러진 물이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에 달려가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프로젝트를 담당할 사무실 직원은 아예 현장기사 노릇을 겸하고 있었다. 어차피 누구하나는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야 할 상황인데, 결국은 쉬운 문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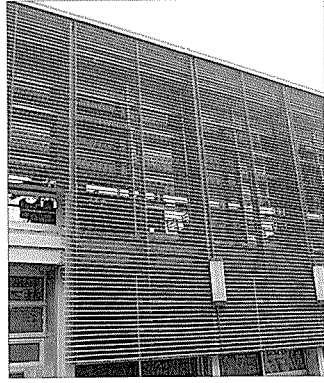
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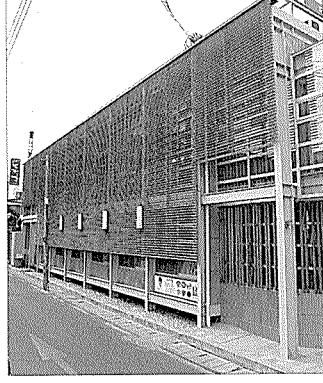
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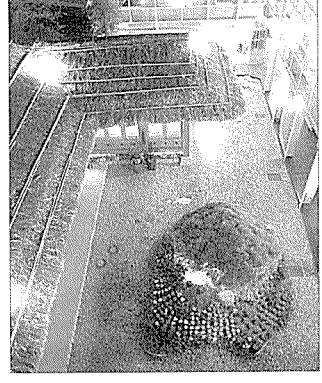
주출입구 (ENT)



외벽 Detail



남동측 전경



옥상에서 바라본 마당 (야경)

어렵게 만든 설계자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애매한 사무실 직원만 죽자고 고생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들의 원망을 다 받아서 삭혀주는, 그야말로 어려운 처지였다. 그래도 현장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건축주가 직접 발주한 부분의 시공자는 전체 공정의 고려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되 뜯기 일췘였고, 원청자는 돈 안되고 어려운 일만 뒷감당하게 되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체인 식당인 덕분에 본사직원이 와서는 다 해놓은 주방공사를 뒤집어 놓으면, 감리하는 직원은 펄펄 뛰고, 나는 생고생하는 불쌍한 감리 녀석 야단치고, 건축주는 날 원망하고, 돈은 무한정 들어가는 그야말로 악몽과 같은 이수라장이 연출되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두 달 예정의 공사기간은 6개월이 넘게 걸렸고 공사비는 최초 예산의 4배 가까이 더 들어갔다.

상처뿐인 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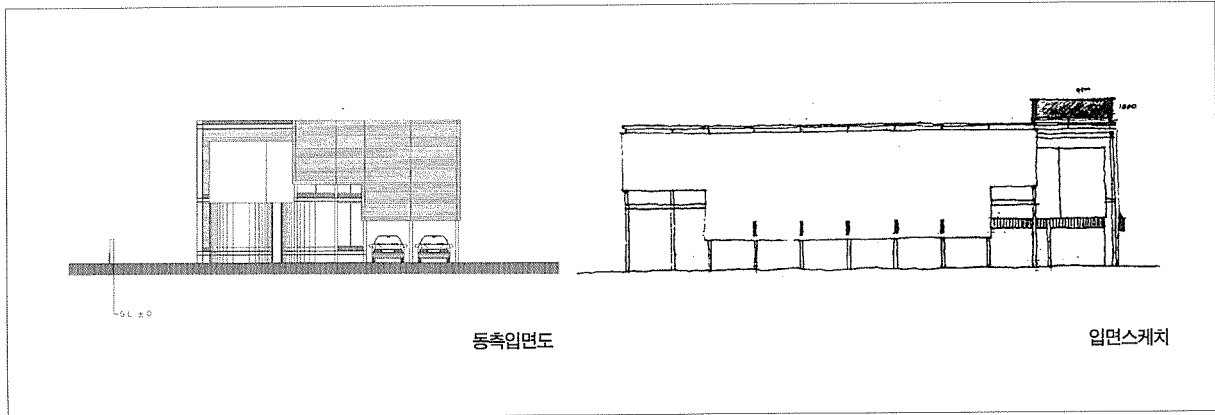
남들이 다 즐거워하던 작년 크리스마스날

이 건물은 Open하였다. 그 날 난 이상하리 만치 느낌이 없었다. 건축과를 갓 졸업하고, 사무실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의 환성도 무덤덤 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이번 경우는 좀 심하긴 했지만 건축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런 과정 없이는 비슷한 것 나오기도 어려운 것이며, 건축가란 또한 원래 그런 직업이니까... 어느새 나는 그간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뻔뻔한 건축가의 본성을 되찾고 있었다.

결국 건축이 날 속인 것 같지는 않다. 내 탓이었을 뿐이지... 그리고, 또 한마디 변명을 덧붙이자면 건축가는 죄가 없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후기

이 지면을 빌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어쩌면 속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항상 건축가의 의도를 후원해 주었던 건축주 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올린다. 또한 이제는 사무실을 떠난 박재영君, 공·시·인 건설의 사장님과 현장 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동측입면도

입면스케치